

작품 내용

제 목	복사되지 않는 것
내 용	처음에는 몰랐다. 짧은 글 한 줄을 쓰는 데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쓰게 되는지.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그랬다.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코드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,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날도 있었다. 누군가 쉽게 복사할 수 있는 글 한 줄, 코드 한 줄에도 보이지 않는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다. 수없이 고민하고 고치고 다시 써 내려간 흔적들이 모여 하나의 창작물이 된다. 그래서 이제는 안다.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작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을.